

의복소비행태와 의류자원활용 방안

서영숙 · 구은영 · 조필교*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가정교육과

A Survey on the Pattern of Consumption and Utilization of Clothes

Young-Sook Suh · Eun-Young Koo · Pyl-Gyo J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1997. 9. 19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n efficient way to utilize clothes. It will be pro-environmental effort besides enhancing clothing life. The study is based on a survey of daily clothing practices. Questionnaire is distributed to female college students who are majoring clothing, textiles, and/or home economics and their parents (n=254). ANOVA, Scheffe test, t-test and regression are pursued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Students, mothers and fathers possess 50.3, 49.9, 45.4 unit clothes, respectively. Mothers possess more formal suits while students possess more casual clothes than the others. The possession pattern is affected by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income and purchasing price.

2. In the unused rate of clothes, students' (10.2%) and mothers' (9.7%) rate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fathers (6.9%). The unused rate and using efficiency of clothes are affected by socio-economic variables: income and age for unused rate; age and purchasing price for using efficiency.

3.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unused clothes is found to be design and color of the clothes. Long years of possessing and change of fashion are the next important reasons.

4. Most of respondents are highly conscious of recycling their clothes. Most of them are willing to donate their clothes to others, re-use or exchange them with the others.

I. 序 論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의 소비과정에서 낭비적, 비효

율적 요소를 극소화하는 합리적 의생활경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의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하여 의생활의 질 향상은 물론 의류자원의 효율적이용 및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논문은 1997년도 경북대학교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과거에는 의복이 신체보호 등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

축시키는 생활필수품으로서 반영구적인 재화로 취급되었으나, 요즈음에 와서는 하나의 소비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의복 자체의 주요 기능의 변화와 소비자의 활동범위의 다양화에 의해서 뿐 아니라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유행전파와 섬유산업의 발전에 의한 결과이다.

즉, 의복의 대외적 기능 강화와 소비자 및 생산자의 의생활 환경 변화가 의복의 종류와 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물리적수명에 상관없이 외관적 수명에 의해서 착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의복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오늘날 소비자 의생활의 합리적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낭비적, 비효율적 요소가 많이 있다.

이러한 사장되는 의복의 증가는 의생활 경영상의 노력·시간·장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 개인과 가정 및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원 및 금전적인 낭비를 의미하며, 또 요즈음에 와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의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회수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쓰레기중 섬유류가 1.94%(1990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류들은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정책수립마저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한국자원재생공사, 1992).

따라서 의생활 전과정에서 합리적 경영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의복소지 및 활용과 의복 사장의 원인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한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나라 소비자들의 의생활을 합리적으로 경영관리하여 의류자원 절약과 환경보존 뿐 아니라 소비자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기저(基底)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衣服所持實態를 알아본다.

(1) 부·모·여대생의 의복소지수를 조사하여 세대간 및 남·녀간의 의복소지 경향을 비교·분석한다.

(2) 의복소지경향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둘째, 衣服活用實態를 알아본다.

(1) 부·모·여대생의 의복死藏率을 조사하여 세대간 및 남·녀간의 의복사장 실태를 비교·분석한다.

(2) 부·모·여대생의 의복 단위가격당 착용일수를 구하여 의복사용 효율성을 비교·분석한다.

(3) 의복사장을 및 사용효율성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셋째, 의복의 死藏原因과 재활용의식을 알아본다.

(1) 부·모·여대생의 의복사장원인을 비교·분석하고,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2) 부·모·여대생의 사장의복에 대한 재활용의식을 비교·분석하고,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II. 先行研究의 概觀

1. 衣服消費實態에 관한 研究

의복은 우리가 사는 집과 비교한다면 내구적이지도 못하고, 음식처럼 한 번에 소비되는 것에 비하면 비내구적이지도 않은 제품이다(Winakor, 1969). 더구나 유행이 의복소비의 중요한 특징임을 생각할 때, 의복은 다른제품에 비해 유행변화, 값증 혹은 개인의 신체변화에 따라 쉽게 폐기될 수도 있다(Shim, 1995). 구입, 소지, 사용, 보관, 폐기라는 일련의 사이클을 가지고 소비되는 이러한 의복제품의 소비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복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며 앞으로 의생활을 개선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日本衣料관리협회에서는 1979년 이후 매년 일본의 “衣料使用實態調査”를, 또 1980년 이후 매년 “衣料의 취득과 폐기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衣料관리협회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여러 연구자들(小林茂雄, 1985; 川崎健太郎, 1987; 川崎健太郎, 1992)이 일본에서의 의복소지실태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의복소지의 변화추이를 조사 보고하였다. 1994년 衣料관리협회 조사결과를 보면, 여대생의 경우는 짧은 바지와 같은 가벼운 衣料와 캐주얼품목이 많았으며, 어머니는 투피스, 자켓류와 같은 무게감이 있는 품목과 스웨터, 가디건 등의 니트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日本衣料管理協會, 1994).

우리나라의 경우, 의복관리실태에 관한 연구들(이금실·문영애, 1984; 신은주·차옥선, 1991; 신상옥, 1976; 전경란, 1977)에서 단편적으로 의복소지 및 사용실태에 관해서 다루어졌다. 강혜원·고에란(1987)은 여대생의 의복품목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정장보다는 캐주얼한 캠퍼스 웨어를 많이 소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유행의 영향을 덜 받는 스타일을 소유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의복사장 및 폐기에 관해서는, 小林茂雄(1984)은 일본衣料관리협회의 衣料폐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복사장정도 및 사장이유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의생활과 환경·자원문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많은 의복품목이 20% 전후로 사장되고 있으며, 폐기매수에 있어서 세대간에 차이를 보여 부·모세대보다 여대생이 훨씬 폐기매수가 많음을 지적하였다(小林茂雄, 1991). 藤原康晴(1989) 등은 사장의복에 관한 의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사장의복이 1세대 평균 54.2매에 달하며, 사장들은 주택의 방배치와 의복에 대한 관심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2. 死藏衣服의 處理와 活用

먼저 착용하지 않는 의복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藤原康晴, 1989; 小林茂雄, 1991; 신은주·차옥선, 1991; 윤정혜, 1995; 전경란, 1977; 김윤미 등, 1994)에서 '유행에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컸고, 그 다음 실증, 구매과다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등과 같은 이유로 나타났다. 김병미·이재명(1997)의 연구에서는 치수가 맞지 않아서, 오래 입고 낡아서, 디자인/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유행에 뒤떨어져서의 순으로 조사되어 선행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유연실(1996)은 성인여성의 경우 폐기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이나 색/무늬 등의 어울림을 포함하는 '적합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 다음 '물리적 효용감소', '유행변화', '품질불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의복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친척,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준 경험이 있거나 주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藤原康晴 등, 1989; 小林茂雄, 1991; 加藤敏子, 1987; 杉原利治, 1991; 김병미·이재명, 1997; 윤정혜, 1985), 그밖에 고쳐서 자신이나 가족이 사용하거나 그대로 보관하거나 폐품업자에게 판다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김병미·이재명(1997)의 연구에서는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다른사람에게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그대로 보관하거나 쓰레기와 함께 버린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처리할 경우는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방법 이외에 고쳐서 재활용하거나 복지시설에 기탁, 혹은 물

물교환장에서 교환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小林茂雄(1991)의 조사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남이경·정정숙(1987)은 사장의복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도 조사에서 여성의 79.3%, 남성의 61.8%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에 竹下弓子등(1989)의 연구에서는 아동복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유효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의 경우 블라우스·셔츠류와 하의류의 경우는 80% 정도가 재이용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은주·차옥선(1991)의 연구에서도 물려주는 방법 이외에는 주로 버리거나 그대로 보관한다는 경우가 많아 앞의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의류의 재활용을 포함한 소비자의 의복관리행동과 환경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폐기되는 의류가 민간단체나 쓰레기 처리업자에 의해 수거되어 재이용되거나 폐기되지만 섬유소비량에 비해 재활용율이 낮은 편이다(대전직할시 보고서). Shim(1995)은 의복폐기 유형과 환경의식 구조를 밝히고 환경적인 태도가 환경친화적인 의복폐기 유형을 예견할 수 있는 변인임을 지적하였다. 이춘희(1995)는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행동이 높은 소비자집단일수록 의복관리행동의 수행수준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용숙(1995)의 연구에서는 의류제품 전과정 관계자의 지구환경문제의식은 비교적 높았으며, 의류제품소비자의 환경보전행동 차원은 의류자원의 재활용, 자원 절약, 녹색상품 구매, 쓰레기 감량 등임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의류제품 그 자체의 물리적 효용감소나 사이즈 변화와 같은 실질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유행, 실증과 같은 기호적인 이유로 수명이 남아있는 의류제품을 사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의류의 재활용방법에 있어서도 그대로 버리거나 보관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등 그 방법에 있어 소비자들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사장의류의 재활용에 대한 교육실시와 재활용품 교환시장 등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장의류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의복의 소비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사장의복의 양, 사장 이유 등 사장실태와 사장의복에 대한 재활용의식을 조

사하여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장의복의 유효한 이용과 나아가서는 의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III. 調査方法 및 節次

1. 測定道具

본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설문지 방식이며, 설문지는 크게 의복소비에 관한 문항, 개인적 환경변인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1) 衣服消費와 關聯된 變因

의복소비에 관한 질문은 일본衣料관리협회의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질문지는 의복소지, 사용 및 사장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복소지에 관한 질문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착용한다고 여겨지는 겹옷과 중간옷 15품목에 대한 소지수, 평균착용일수, 소지기간, 사장의복수 등을 포함하며, 의복사장에 관련해서는 사장원인, 사장의복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 사장의복의 재활용의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環境變因

환경변인으로는 가족의 월평균 가계소득과 월평균 피복비, 의복구입가격, 교육수준, 연령 등을 조사하였다.

2. 資料收集 및 分析方法

1) 調査對象 및 資料收集

1997년 3월 9일~3월 14일에 걸쳐 가정학전공 여대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의류학과 가정학을 전공하는 여대생과 그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1997년 4월 10일~5월 10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배포할 때 조사자가 모든 설문문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조사대상인 여대생에게 설명을 하였고, 부·모의 경우는 여대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되었으며, 각자 본인의 의복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800부의 설문지 중 450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내용이 잘못되거나 불충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5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分析方法

연구과제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package를

이용하였다. 의복품목별 소지수, 의복사장률, 사용효율성 및 사장원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지수, 의복사장률과 사용효율성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結果 및 論議

1. 衣服所持實態

1) 의복소지수

부·모·여대생의 의복품목별 평균소지수를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의복품목별 소지수 (단위: 개수)

| 품목 | 부 | 모 | 여대생 | F값 |
|-----------|--------|--------|--------|------------|
| 원 피 스 | | 2.47 | 1.82 | -2.08* |
| 정 장 | 6.86A | 5.05B | 2.10C | 42.4002*** |
| 블 라 우 스 | | 5.33 | 2.31 | -7.20*** |
| 드레스셔츠 | 6.60 | | | |
| 자 켓 | 2.59B | 4.29A | 4.25A | 7.1399*** |
| 스 키 어 트 | | 6.55 | 3.39 | -4.67*** |
| 바 지 | 4.31A | 3.82A | 2.02B | 12.1357*** |
| 점 퍼 | 3.69A | 2.03B | 1.92B | 27.3321*** |
| 스 웨 터 | 2.53B | 2.94AB | 3.62A | 3.2688* |
| 가 더 진 | 1.29B | 1.93A | 2.31A | 7.5980*** |
| 캐쥬얼셔츠 | 8.95B | 7.39B | 13.64A | 11.5674*** |
| 캐쥬얼바지 | 3.29B | 3.36B | 6.98A | 35.0283*** |
| 트레이닝복 | 2.29A | 0.78C | 1.62B | 36.0008*** |
| 코 트 류 | 1.62B | 2.42A | 2.62A | 8.6350*** |
| 잠 옷 류 | 1.48 | 1.79 | 1.35 | 2.9042 |
| 전 체 평균소지수 | 45.40 | 49.97 | 50.26 | 0.8787 |
| 캐쥬얼 평균소지수 | 23.53B | 20.01B | 31.43A | 16.0138*** |
| 정장류 평균소지수 | 18.83B | 29.96A | 21.86B | 14.7385*** |

*p≤.05 ***p≤.001

→ABC는 Duncan Test결과. A>B>C순서.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어트는 t값임.

→캐쥬얼류=점퍼+스웨터+가더진+캐쥬얼셔츠+캐쥬얼바지+트레이닝복

→정장류=원피스+정장(투피스, 팬츠수트 등)+블라우스+드레스셔츠+자켓+스커어트+바지(정장단품)+코트류

전체 의복소지수는 여대생(50.3매), 어머니(49.9매), 아버지(45.4매)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캐주얼류는 여대생이 부·모보다, 정장류는 어머니가 여대생·부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양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은주·차옥선(1991), 강혜원 등(1987) 및 일본衣料관리협회(1994)의 결과와 유사하다.

잠옷류를 제외한 모든 조사품목에서 부·모·여대생 세 집단간에 소지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경우는 정장·바지·점퍼·트레이닝복을, 자켓·가디건·코트류는 여대생과 어머니가, 캐주얼셔츠·캐주얼바지·스웨더는 여대생이 부·모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피스·스커트·블라우스의 경우는 어머니가 여대생보다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

의복소지에 대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머니는 원피스 등의 정장류를, 딸의 세대는 캐주얼셔츠 등의 캐주얼류를, 정장·점퍼·트레이닝복 등은 여성(어

머니, 여대생)보다 남성이, 더욱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경향이였다.

2) 의복소지수와 관련변인

연령,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피복비지출 및 의복구입 가격이 의복소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의복 소지수 및 전체를 캐주얼과 정장류로 나누어 각각의 소지수를 종속변수로 삼았으며, 부·모·여대생 전체 및 각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값비싼 의복을 구입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전체적으로 더욱 많은 의복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주얼류는 구입가격, 연령, 월피복비지출이, 정장류 경우는 월소득과 연령이 그 소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는 구입가격, 소득과 월피복비가 전체의복소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이 높을수록, 비싼 의복을 구입할수록 정장소지수도 많았다. 어머니는 연령이 많을수록 전체의복소지수가 많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정장류를 많이 소지하고 있었

<표 2> 의복소지수에 대한 관련변인의 회귀분석 결과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베타값(T값) | | | |
|---------------|-------|-----------------------------------|-----------------|-----------------|------------------|
| | | 전체 | 부 | 모 | 여대생 |
| 전체 평균소지수 | 구입가격 | .23* (2.3) | .51*(3.0) | | |
| | 월가계소득 | .28**(3.2) | .28*(1.8) | | .37**(2.8) |
| | 연령 | | | .23*(1.8) | .35*(2.6) |
| | 월피복비 | | -.48*(-2.6) | | |
| | | R ² = .13 (P≤ .001) | .29 (P≤ .01) | .18 (P≤ .05) | .26 (P≤ .01) |
| 캐주얼류 평균소지수 | 구입가격 | .24* (2.4) | | | |
| | 연령 | -.27**(-3.0) | | | |
| | 월피복비 | -.19* (-2.1) | | | |
| | | R ² = .12 (P≤ .001) | | | |
| 정장류 평균소지수 | 월가계소득 | .36** (4.4) | .32*(2.1) | .39*(2.4) | .56** (5.7) |
| | 연령 | .26** (3.2) | | | .49** (4.9) |
| | 구입가격 | | .52*(3.2) | | |
| | | R ² = .24 (P≤ .001) | .35 (P≤ .01) | .24 (P≤ .05) | .58 (P≤ .001) |

*p≤.05 **p≤.01

→구입가격: 봄·가을용 정장 한벌을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비용.

고, 여대생의 경우는 월가계소득과 연령이 전체의복소 지수와 정장류소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주얼류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에서 독립변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所持衣服의 使用實態

소지하고 있는 의복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복품목별 소지수를 사장의복수로 나누어 그 백분율을 구하여 사장을을 산출하였고, 또한 단위가격당 착용일수(일×년/만원)를 산출하여 사용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1) 의복사장을

부·모·여대생의 의복품목별 사장을과 이를 비교·설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의복품목별 사장을 (단위: %)

| 품목 | 부 | 모 | 여대생 | F값 |
|-----------|--------|--------|--------|-----------|
| 원피스 | | 18.51 | 19.79 | .29 |
| 정장 | 13.76 | 14.54 | 16.93 | .3867 |
| 블라우스 | | 17.34 | 15.04 | -.70 |
| 드레스셔츠 | 10.32 | | | |
| 자켓 | 8.98 | 14.96 | 15.21 | 1.8603 |
| 스커트 | | 19.64 | 20.13 | .13 |
| 바지 | 14.15 | 11.17 | 13.64 | .3500 |
| 점퍼 | 15.05 | 16.33 | 22.99 | 1.9468 |
| 스웨터 | 11.41B | 14.61B | 2157A | 3.2134* |
| 가디건 | 13.19 | 5.13 | 12.38 | 2.7668 |
| 캐주얼셔츠 | 11.07 | 13.14 | 16.78 | 2.4062 |
| 캐주얼바지 | 9.70AB | 7.25B | 15.49A | 4.8883** |
| 트레이닝복 | 9.85 | 15.74 | 14.33 | .2462 |
| 코트류 | 12.91 | 11.06 | 7.83 | 1.1140 |
| 잠옷류 | 3.65 | 5.94 | 10.45 | 1.7542 |
| 전체 평균사장을 | 6.84B | 9.65A | 10.22A | 3.5381* |
| 캐주얼 평균사장을 | 9.66AB | 7.21B | 12.91A | 6.6203** |
| 정장류 평균사장을 | 5.42C | 12.15A | 9.05B | 9.2252*** |

*p≤.05 **p≤.01 ***p≤.001

→ABC는 Duncan Test결과. A>B>C 순서.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트는 t값임.

→캐주얼류=점퍼+스웨터+가디건+캐주얼셔츠+캐주얼바지+트레이닝복

→정장류=원피스+정장(투피스, 팬츠수트 등)+블라우스+드레스셔츠+자켓+스커트+바지(정장단품)+코트류

사장의복비율은 여대생은 10.22%, 어머니는 9.65%, 아버지 6.84%이며, 여대생과 어머니의 의복 사장이 아버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신은 주·차옥선(1991)과 小林茂雄(1991)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캐주얼류는 여대생이 부·모보다, 정장류는 어머니가 부·여대생보다 사장이 유의하게 높았다. 품목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스웨터·캐주얼바지였으며, 여대생이 부·모보다 이들 품목의 사장이 유의하게 높아 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여대생·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사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또한 캐주얼류는 여대생이, 정장류는 어머니가 소지수도 많으면서 사

<표 4> 의복품목별 사용효율성 : 단위가격당 착용일수 (일×년/만원)

| 품목 | 부 | 모 | 여대생 | F값 |
|-----------|---------|----------|---------|------------|
| 원피스 | | 10.91 | 6.92 | -1.52 |
| 정장 | 16.61A | 13.56A | 2.36B | 14.1021*** |
| 블라우스 | | 70.48 | 14.14 | -3.26** |
| 드레스셔츠 | 96.84 | | | |
| 자켓 | 28.56 | 29.81 | 27.16 | 0.1143 |
| 스커트 | | 62.20 | 14.92 | -3.68*** |
| 바지 | 137.00A | 71.86B | 25.54C | 10.51*** |
| 점퍼 | 40.41A | 30.19A | 13.88B | 5.6274** |
| 스웨터 | 22.01 | 38.53 | 30.27 | 2.0972 |
| 가디건 | 15.75B | 39.92A | 23.76B | 4.7470** |
| 캐주얼셔츠 | 107.92B | 127.55AB | 178.96A | 3.2453* |
| 캐주얼바지 | 48.20C | 100.91B | 159.88A | 13.9944*** |
| 트레이닝복 | 53.71 | 44.90 | 89.99 | 2.0956 |
| 코트류 | 8.23 | 9.83 | 11.29 | 1.2433 |
| 잠옷류 | 196.35 | 208.79 | 196.58 | 0.0687 |
| 전체 평균효율성 | 38.67 | 43.03 | 41.58 | 0.2691 |
| 캐주얼 평균효율성 | 40.30B | 48.12B | 72.78A | 8.5573*** |
| 정장류 평균효율성 | 25.46A | 28.27A | 10.00B | 11.1626*** |

*p≤.05 **p≤.01 ***p≤.001

→ABC는 Duncan Test결과. A>B>C 순서.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트는 t값임.

→캐주얼류=점퍼+스웨터+가디건+캐주얼셔츠+캐주얼바지+트레이닝복

→정장류=원피스+정장(투피스, 팬츠수트 등)+블라우스+드레스셔츠+자켓+스커트+바지(정장단품)+코트류

장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많이 소지할수록 사장되는 비율도 높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의복사용효율성

의복품목별 사용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지기간과 평균착용일수와의 곱을 구입가격으로 나누어 구입비용 단위당 착용일수(일×년/만원)를 산출하고 이를 비교·설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전체의복의 평균 사용효율성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캐주얼류의 경우는 여대생이 부·모에 비해서, 정장류는 부·모가 여대생에 비해서 단위가격당 착용일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대생은 부·모에 비해서 캐주얼류들, 정장류의 경우는 부·모가 여대생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목별로 보면, 정장·바지·스웨터·가디건·캐주얼셔츠 등에서 부·모·여대생 간에 사용효율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정장·바지·점퍼는 부·모가 여대생보다, 캐주얼셔츠·캐주얼바지는 여대생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이었고 가디건은 어머니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옷류는 세 집단 모두에서 단위가격당 착용일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주얼셔츠·캐주얼바지·트레이닝복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품목이었다.

3) 의복사장율, 사용효율성과 관련변인

의복사장율과 사용효율성에 어떠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의복, 캐주얼류 및 정장류의 평균사장율과 평균사용 효율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월가계소득·월피복비지출·의복구입가격을 독립변인으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의복사장율이 높으며, 캐주얼류와 정장류로 나누어 분석해 봤을 때도 소득, 연령 및 월피복비가 각각의 사장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효율성에 있어서는, 캐주얼류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정장류는 연령이 높을수록, 구입가격이 낮을수록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장율과 사용효율성에 대한 이들변인들의 설명력은 15% 전후로 낮은

편이었다.

집단별로 분석해 본 결과, 여대생의 경우만 가계소득, 연령 및 월피복비가 전체의복과 정장류의 사장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효율성에 대한 각집단별 분석에서는 세 집단 모두에서 이들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衣服의 死藏原因

1) 의복의 사장원인

의복을 착용하지 않고 사장하고있는 원인을 설명하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여 1~5점으로 점수를 주었으며 분류된 집단간에 그 평균점수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사장율과 사용효율성에 대한 관련변인의 회귀분석 결과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베타값(T값) | |
|-------|---------|-----------------------------------|--------------|
| | | 전 체 | 여대생 |
| 전 체 | 월가계소득 | .30*** (3.4) | .27* (2.1) |
| 평균사장율 | 연 령 | -.16* (-1.8) | .48*** (3.9) |
| | | R ² = .12 (P≤ .01) | .33(P≤ .001) |
| 캐주얼류 | 월가계소득 | .21* (2.4) | |
| 평균사장율 | 연 령 | -.33*** (-3.7) | |
| | | R ² = .13 (P≤ .001) | |
| 정장류 | 월가계소득 | .31*** (3.5) | .26* (2.2) |
| 평균사장율 | 월 피복비 | .16* (1.7) | .50*** (4.1) |
| | | R ² = .11 (P≤ .01) | .38(P≤ .001) |
| 캐주얼류 | 연 령 | -.25** (-2.8) | |
| 사용효율성 | | | |
| | | R ² = .15 (P≤ .001) | |
| 정장류 | 구 입 가 격 | -.25* (-2.5) | |
| 사용효율성 | 연 령 | .43*** (4.9) | |
| | | R ² = .17 (P≤ .001) | |

*P≤.05 **P≤.01 ***P≤.001

→구입가격:봄·가을용 정장 한벌을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비용.

<표 6> 의복의 사장원인

| 구분 원인 | 구분 | 대 상 | | | 월가계소득 | | | 월피복비 | | | 구입가격 | | |
|---------------------------|----|--------|------|------|-------------|---------------|-------------|-----------|------------|------------|------------|-------------|------------|
| | | 부 | 모 | 여대생 | 180만원 이하 | 181~250 만원 | 250만원 이하 | 8만원 이하 | 9~15 만원 | 15만원 이상 | 20만원 이상 | 21~30 만원 | 31만원 이상 |
| 구입한지 오래되서 | M | 3.31 | 3.50 | 3.49 | 3.56 | 3.49 | 3.25 | 3.45 | 3.55 | 3.25 | 3.56 | 3.49 | 3.26 |
| | F값 | 1.1297 | | | 2.3365 | | | 2.3110 | | | 2.6190 | | |
| 손질, 관리상의 문제때문에 | M | 3.16 | 3.27 | 2.85 | 2.89 | 3.33 | 2.98 | 3.05 | 2.94 | 3.22 | 2.97 | 3.14 | 3.00 |
| | F값 | AB | A | B | B | A | B | 1.2983 | | | .6899 | | |
| 유행이 지나서 | M | 3.16 | 3.38 | 3.52 | 3.39 | 3.43 | 3.26 | 3.46 | 3.52 | 3.15 | 3.56 | 3.39 | 3.21 |
| | F값 | B | AB | A | .6577 | | | A | A | B | 2.7300 | | |
| 나이·신분에 맞지 않아서 | M | 3.34 | 3.27 | 3.19 | 3.19 | 3.46 | 3.25 | 3.20 | 3.47 | 3.15 | 3.24 | 3.26 | 3.22 |
| | F값 | .4014 | | | 1.2626 | | | 2.0304 | | | .0233 | | |
| 불편해서 | M | 3.60 | 3.39 | 3.21 | 3.35 | 3.49 | 3.56 | 3.19 | 3.49 | 3.46 | 3.28 | 3.29 | 3.50 |
| | F값 | 2.5403 | | | .5842 | | | 1.7952 | | | .8462 | | |
| 색이 바래고 치수가 변해서 | M | 3.55 | 3.30 | 3.32 | 3.35 | 3.46 | 3.46 | 3.47 | 3.32 | 3.30 | 3.50 | 3.37 | 3.24 |
| | F값 | .9764 | | | .1767 | | | .5193 | | | .9257 | | |
| 충동적으로 구입해서 | M | 2.67 | 2.61 | 3.26 | 2.96 | 2.78 | 2.86 | 2.83 | 3.10 | 2.73 | 2.88 | 2.90 | 2.83 |
| | F값 | B | B | A | .5976 | | | 2.6494 | | | .1113 | | |
| 옷의 형이 변해서 | 평균 | 3.39 | 3.23 | 3.09 | 3.44 | 3.26 | 3.09 | 3.19 | 3.16 | 3.26 | 3.24 | 3.21 | 3.18 |
| | F값 | 1.6148 | | | 1.6506 | | | .1784 | | | .0646 | | |
|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M | 3.66 | 3.64 | 3.87 | 3.83 | 3.86 | 3.51 | 3.81 | 3.82 | 3.54 | 3.84 | 3.68 | 3.72 |
| | F값 | 1.6723 | | | A | A | B | 2.0309 | | | .5848 | | |

*P≤.05 **P≤.01

→구입가격: 봄·가을용 정장 한벌을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비용.

→평균점수(M)가 높을수록 원인이 더 큼을 의미.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여대생 모두 '디자인·색상'이 가장 큰 사장원인이 됨을 보여준다. 그밖에 아버지의 경우는 '불편해서'와 '색이 바래고 치수가 변해서'가, 어머니와 여대생은 '구입한지 오래되서'와 '유행이 지나서'가 주 사장원인으로 나타나 남·녀간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신은주·차옥선(1991), 윤정혜(1995) 등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이다.

집단간 비교에서는 '유행이 지나서'는 아버지보다 여대생·모에게, '충동적으로 구입한 것이어서'는 부·모보다 여대생에게, 그리고 '손질, 관리상의 문제때문에'는 어머니와 중간소득집단에서 더욱 큰 사장원인이 되었다. 또한 월피복비지출이 낮을수록 '유행이 지나서'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디자인·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장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층이 디자인, 색상 등과 같은 '심리적이유'로 더 많은 의복을 사장하고 있다는 신은주·차옥선(1991)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사장의복의 보관이유

입지 않는 의복을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는 이유를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장의복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는 이유로 부·모·여대생 모두 '버리기 아까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약 50%)이 가장 높았다. 그밖에 '앞으로 고쳐입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는 여대생·모가 아버지에게 비해서,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그냥 보관한다는 어머니

<표 7> 사장의복의 보관이유

(단위 : %(n), 복수응답임)

| 보관이유 | 구분 | | | 대 상 | | | 월가계소득 | | | 월 피 복 비 | | | 구 입 가 격 | | |
|---------------------|----------------|----------------|----------------|---------------|----------------|---------------|----------------|----------------|----------------|----------------|----------------|----------------|---------|--|--|
| | 부 | 모 | 여대생 | 180만원 이하 | 181~250만원 | 251만원 이상 | 8만원 이하 | 9~15만원 | 16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 21~30만원 | 31만원 이상 | | | |
| 버리기 아까워서 | 47.0 (47) | 51.6 (65) | 48.6 (88) | 47.9 (45) | 49.6 (62) | 51.0 (50) | 48.2 (67) | 52.5 (74) | 48.2 (53) | 47.6 (60) | 49.0 (77) | 50.0 (55) | | | |
| 출사람이 없어서 | 21.0 (21) | 22.2 (28) | 10.0 (18) | 17.0 (16) | 22.4 (28) | 13.3 (13) | 15.8 (22) | 15.6 (22) | 18.2 (20) | 13.5 (17) | 21.0 (33) | 14.6 (16) | | | |
| 앞으로 고쳐입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 6.0 (6) | 15.1 (19) | 18.2 (33) | 17.0 (16) | 11.2 (14) | 13.3 (13) | 19.4 (27) | 12.8 (18) | 10.9 (12) | 16.7 (21) | 11.5 (18) | 15.4 (17) | | | |
|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 22.0 (22) | 9.5 (12) | 17.7 (32) | 13.8 (13) | 14.4 (18) | 19.4 (19) | 15.1 (21) | 16.3 (23) | 16.4 (18) | 17.5 (22) | 15.3 (24) | 15.4 (17) | | | |
| 기 타 | 4.0 (4) | 1.6 (2) | 5.5 (10) | 4.3 (4) | 2.4 (3) | 3.0 (3) | 1.5 (2) | 2.8 (4) | 6.3 (7) | 4.7 (6) | 3.2 (5) | 4.6 (5) | | | |
| 합 계 | 100.0 (100) | 100.0 (126) | 100.0 (181) | 100.0 (94) | 100.0 (125) | 100.0 (98) | 100.0 (139) | 100.0 (141) | 100.0 (110) | 100.0 (126) | 100.0 (157) | 100.0 (110) | | | |

→구입가격 : 봄·가을용 정장 한벌을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비용.

에 비해 부·여대생이 더욱 응답율이 높았다. 그 밖에 소득과 피복비지출이 낮은 집단일 수록 '앞으로 고쳐입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보관한다는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소득과 피복비지출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면, 환경변인의 차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버리기가 아까워서'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그대로 보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와 세대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사장의복을 앞으로 고쳐서 입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어머니 세대보다는 딸세대가 소지하고있는 의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4. 死藏衣服의 재활용

의복의 수명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착용하지 않는 의복 즉 사장의복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8>과 같다. 소비자들의 사장의복에 대한 처리 즉 재활용의식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다른사람에게 준다, 재해지·복지시설에 기부, 고쳐서 입는다, 물물교환회를 이용한다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藤原康階등(1989), 小林茂雄(1991), 加藤敏子(1987), 김병미·이재명(1997) 등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부·모·여대생 모두 재활용의식에 있어서 비슷한 경

향을 보였으며, 가계소득, 월피복비, 의복구입가격을 근거로 나누어 본 집단간 비교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재활용 의식을 보였다. 다만 몇가지 집단간 차이를 찾아보면 소득과 월피복비지출이 적고 의복구입가격이 낮은 집단일수록 '고쳐서 입는다'에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재해지·복지시설에 기부한다'에 높게 응답한 사람은 소득과 피복비지출이 높고 의복구입가격이 높은 집단에서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수준이 낮은 층이 사장된 의복을 '고쳐서 입는다'와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재활용한다'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신은주·차옥선(199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다른사람에게 주거나 재해지·복지 시설에 기부, 고쳐서 입거나, 물물교환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버리거나, 그대로 보관하겠다는 응답률은 낮게 나타나 높은 재활용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나뉘쓰기 운동이나 물물교환시장과 알뜰바자회 같은 것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이러한 사장의복을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의류자원을 충분히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V. 結論 및 提言

1. 전체의복소지수는 여대생(50.3매)·모(49.9매)·

<표 8> 시장의복에 대한 재활용의식

(단위 : %(n), 복수응답임)

| 처리방법 | 구분 | | | 월가계소득 | | | 월 피부비 | | | 구입 가격 | | |
|----------------|---------------|---------------|----------------|---------------|---------------|---------------|----------------|----------------|---------------|---------------|----------------|---------------|
| | 부 | 모 | 여대생 | 180만원 이하 | 181~250만원 | 251만원 이상 | 8만원 이하 | 9~15만원 | 16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 21~30만원 | 31만원 이상 |
| 버린다 | 7.9 (6) | 7.3 (7) | 5.4 (7) | 11.6 (8) | 3.2 (3) | 9.4 (7) | 7.6 (8) | 3.9 (4) | 9.2 (8) | 4.3 (4) | 7.5 (8) | 6.4 (6) |
| 싸게판다 | 2.6 (2) | 4.2 (4) | 1.5 (2) | 2.9 (2) | 4.3 (4) | 1.4 (1) | 0.9 (1) | 4.9 (5) | 2.3 (2) | 2.1 (2) | 3.8 (4) | 1.1 (1) |
| 물건교환회를 이용 | 10.5 (8) | 7.3 (7) | 10.0 (13) | 7.3 (5) | 11.8 (11) | 6.8 (5) | 9.5 (10) | 11.7 (12) | 6.9 (6) | 9.7 (9) | 10.4 (11) | 8.6 (8) |
| 다른사람에게 준다 | 51.3 (39) | 43.7 (42) | 41.5 (54) | 36.2 (25) | 48.4 (45) | 40.5 (30) | 42.9 (45) | 41.2 (42) | 48.3 (42) | 37.6 (35) | 49.1 (52) | 45.2 (42) |
| 재해지·복지시설 등에 기부 | 17.1 (13) | 19.8 (19) | 20.0 (26) | 21.7 (15) | 11.8 (11) | 28.4 (21) | 14.3 (15) | 19.6 (20) | 23.0 (20) | 21.5 (20) | 15.1 (16) | 22.6 (21) |
| 고쳐서 입는다 | 7.9 (6) | 15.6 (15) | 20.8 (27) | 18.8 (13) | 17.2 (16) | 9.4 (7) | 23.8 (25) | 15.7 (16) | 6.9 (6) | 22.6 (21) | 12.2 (13) | 12.9 (12) |
| 그대로 보관 | 2.7 (2) | 2.1 (2) | 0.8 (1) | 0 (0) | 3.3 (3) | 2.7 (2) | 1.0 (1) | 2.0 (2) | 2.3 (2) | 1.1 (1) | 1.9 (2) | 2.1 (2) |
| 기 타 | | | | 1.5 (1) | 0 (0) | 1.4 (1) | 0 (0) | 1.0 (1) | 1.1 (1) | 1.1 (1) | 0 (0) | 1.1 (1) |
| 합 계 | 100.0 (76) | 100.0 (96) | 100.0 (130) | 100.0 (69) | 100.0 (93) | 100.0 (74) | 100.0 (105) | 100.0 (102) | 100.0 (87) | 100.0 (93) | 100.0 (106) | 100.0 (93) |

부(45.4매)의 순으로 많았다. 캐주얼류는 여대생이 부·모보다, 정장류는 어머니가 여대생·부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값비싼 의복을 구입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의복소지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여대생(10.22%)과 어머니(9.65%)의 의복사용률이 아버지(6.84%)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의복 사용효율성 측면에서는, 여대생은 캐주얼류를 부·모에 비해서, 정장류의 경우는 부·모가 여대생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물에는 소득과 연령이, 사용효율성에는 연령과 구입가격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3. 부·모·여대생 모두에게 '디자인·색상'이 가장 큰 사정원인이었으며, 그밖에 '구입한지 오래되서'와 '유행이 지나서'가 주 사정원인이었다.

4.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재해지·복지시설에 기부, 고쳐서 입거나, 물건교환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높은 재활용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의류자원의 합리적인 경

영 및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의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장의복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인의 의복소지현황을 잘 파악하고 구입시부터 환경친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구매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하여 의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자들의 바람직한 행동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시장의복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수거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재해지 등에의 기부, 물건교환회 등을 이용하겠다는 높은 재활용의식을 가지고있으므로, 물물교환시장이나 바자회 등을 활성화시켜 소비자들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교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기부시설을 배치하는 등 행정적 뒷바침이 필요하다. 또한 영국의 OXFAM과 같은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재활용품 상점을 통한 기부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대구시와 인근지역의 여대생과 그 부·모

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연구의 자료가 소비자의 기억을 통한 자료로서 다소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제한점을 가지며, 한 번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의복소비실태를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으로써 생활의 합리적인 경영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강혜원·고애란, 여대생의 의복목록 비교분석 — 1976~1986년 사이의 변화추이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vol 1, 1-13, 1987.
- 김병미·이재명,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5(2), 19-32, 1997.
- 김용숙, 의류제품 전과정 관계자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 행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길윤미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의류에 대한 인식과 섬유 종류별 분해에 관한 연구, 婦學,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 제27호, 1994.
- 남이경·정정숙, 피복의 소비행동과 가정배경에 관한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25(2), 1987.
- 대전직할시, 대전직할시 일반폐기물의 질적 특성 및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153-161, 1992년, 12월, 김병미·이재명(1997)에서 재인용.
- 신상숙, 도시주부의 의생활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3), 879-889, 1976.
- 신은주·차옥선, 도시가정의 의복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생활 과학연구, vol 9, 5-23, 1991.
- 유연실, 성인여성의 의복폐기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142-156, 1996.
- 윤정혜, 가정의류의 불용 재고에 관한 연구, 동래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4집, 253-256, 1985.
- 이금실·문영애, 주부들의 의복행동과 피복관리에 대한 태도 및 관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1), 87-97, 1984.
- 이춘희, 소비자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의복관리 행동과 의류자원 재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전경란, 충청북도내 여대생의 의생활관리 실태조사연구, 청주교육대학논문집, 13집, 295-305, 1977.
- 한국자원재생공사, 폐기물 자원화 정보, 7월 1992.
- 加藤敏子, 大森和子, 藤枝恵子, 金原ちえ子, 高等學校衣生活教育に關する考察(第1報) — 高校女生徒の家庭の衣生活管理 —, 日本家政學會誌, 38(7), 623-633, 1987.
- 藤原康晴, 所康子, 天端澄子, 死藏被服に關する意識と實態, 日本家政學會誌, 40(7), 641-646, 1989.
- 杉原利治, 衣生活のエネルギー分析, 衣生活, 1991.
- 小林茂雄, 消費者調査と衣生活,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6(11), 459-463, 1985.
- 小林茂雄, 衣料廢棄の意識と — 衣生活と環境・資源問題 — 實態を中心に, 衣生活, 6(29), 15-22, 1991.
- 小林茂雄, 被服の處分,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5(11), 567-570, 1984.
- 日本家政學會(1992), 衣服の供給と消費, 朝倉書店.
- 日本衣料管理協會, 衣料の使用實態調査 解析事例, 1994.
- 日本衣料管理協會, 衣料の使用實態調査, 1994.
- 竹下弓子, 林豊子, 辻啓子, 山田令子, 家庭における衣生活管理の現狀, 纖維製品消費科學誌, 30(6), 265-270, 1989.
- 川崎健太郎, 衣料消費統計のある見方 — 女子大生のワートローフ調査より —,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8(7), 261-265, 1987.
- Soyeon Shim, Environmentalism and Consumers' Clothing Disposal Patterns: An Exploratory Stud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1), 38-48, 1995.
- Winakor, G., The process of clothing consump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1(8), 629-634, 1969.